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 스테이크 부장
최 옥 환

추운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황막한 대지가 푸르름을 찾고, 모든 생물이 생기를 찾고 힘껏 솟아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하여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경박하고 오만한 자에게는 경고의 채찍을 주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어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미움과 시기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들이지 않고 흐르듯이 그분은 하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 솟아오르는 해를 보듯이 주님은 매일매일 생활의 질서 속에 소망과 활력을 얻으며 성도들이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생활을 원하십니다. 회복된 복음은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이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 교회는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조직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

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참 진리를 가장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며 진정한 자유의 의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체인 가정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정을 평화로운 안식처로, 행복한 보금자리로, 지상의 작은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내일부터 열 한 살까지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봉사 정신을 심어, 열두 살부터 열 여덟 살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질서와 자립심을 길러 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흥겨운 활동과 대화로 훌륭한 가정을 이루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을 길러 주는 프로그램은 너무도 훌륭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정에서의 대화와 신앙 생활의 일반화, 즉 생활화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돕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크을 기억하라.”(교성 18:10)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으며, 또한 귀한 존재입니다.

좋은 약이 몸에 이롭듯이 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담으로부터 나까지 많은 조상들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조상 가운데 한 분만 없어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며, 나 또한 후손에게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족보에 대한 탐구와 신전 의식은 회복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사업이며 중요한 의식입니다. 회복된 복음의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며 모든 산 자와, 죽은 자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서울 신전을 건립할 수 있는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의롭고 깨끗한 생활을 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신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서로서 사랑하고 진리를 알아 가장 자유스럽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945~1974) 벨 스패포드 자매 별세



근 30년 동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벨 스미스 스패포드 자매가 1982년 2월 2일에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병원에서 오랜 숙환으로 별세했다. 벨 자매는 향년 86세였다.

스패포드 자매는 1945년 4월 6일부터 1974년 10월 3일에 해임될 때까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상호부조회는 주로 미국 서부의 10만여명의 조직에 불과했으나 그녀의 재임 기간에 65개 국가의 각 지역에 단위 조직을 가진 약 90만 명의 국제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스패포드 자매는 그 중에 많은 지역을 방문했다.

스패포드 자매는 1968년에 미합중국 여성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봉사했다.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이 평의회의 부의장으로 8년간 봉사했으며 오랫동안 집행 위원회 위원으로도 봉사했다.

스패포드 자매는 1954년 핀란드의 헬싱키, 1966년 이란의 테헤란, 1966년 태국의 방콕에서 3년마다 열린 국제 여성 평의회의 미합중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으며, 194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1957년 캐나다의 몬트리올, 1963년 워싱턴에서 열린 모임(3년마다 개최됨)에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스패포드 자매는 유타 대학교 사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동 대학교의 훈련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스패포드 자매는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고 교회 대관장의 지시를 받으며 봉사했다. 스패포드 자매는 본부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거의 3년 동안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고 7년 동안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으로 봉사했다. *

새로운 계보 도서관 발족

다가오는 7월에 새로운 교회 계보 도서관의 건축이 시작된다. 책임자와 설계자들은 1984년에 완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0년 세계 기록 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발표한 이 5층 규모의 도서관 건물은 앞으로 확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조상으로는 그 건물은 3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 계보과 도서관 책임자인 데이비드 엠 메이필드가 말했다. “계보 사업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응해서 성장해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템플 스퀘어 서쪽 입구에서 거리 건너에 세워질 136,000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이 특별히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질 최초의 솔트레이크 계보 도서관이 될 것이다. *

미국과 영국에 내습한 혹한 회원들은 무사함

존 엘 하트

처치 뉴스 주간

태평양 연안부터 대서양 해안까지 북미 거주민은 1월 한달 대부분을 혹독한 겨울 기상 상태에 시달리면서 보냈다. 그러나 진눈깨비와 눈과 얼음과 바람이 합세해서 기록상 가장 혹독한 겨울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지만 교회 회원들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일기로 인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합중국과 대영 제국—이곳도 혹독한 겨울 폭풍을 겪었음—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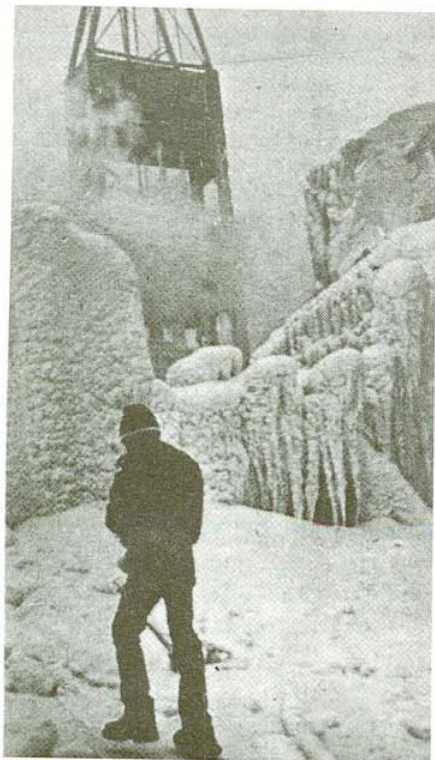
러 지역으로 전화해 본 결과 죽거나 중상을 입은 성도에 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1월 초순에는 캘리포니아 북쪽의 살인적인 폭풍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진흙사태가 가옥에 밀어닥쳐서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물어버렸다. 캘리포니아 북쪽의 여러 지역 대표로부터 심각한 손상에 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몇몇 회원의 집은 파손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마리군은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이었다. 로이드 존슨 코우프 지역 대표는 회원들이 “조금 젖기는 했지만 모두 무사하다”고 말했다. 교회 집회소는 대피소로 사용되었으며 회원들은 자기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기타 비상구급품을 보급하는 일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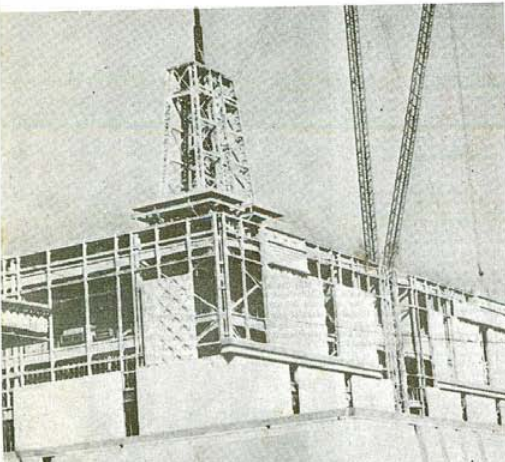
코우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전화선은 불통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서로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대를 편성해서 사람들이 식량과 의복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점검했습니다.”

교회 선교 사업 책임자인 아더 스트롱은 그가 대영 제국의 선교 부장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번 겨울이 50년만에 제일 추운 겨울이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겨울이 기록상으로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으나 모두 무사합니다. 일부 교회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



시카고 지역은 얼음 도시같이 보인다. 유 피 아이 사진 보도

금년 말에 완공될 멕시코 신전



마야 도안의 석조판이 멕시코 시티 신전에 세워지게 된다. 건축가들은 건물이 3분의 2 이상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이 신전은 교회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크고, 미주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멕시코시티 신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자 회원들은 더할나위 없이 기뻐하고 있다. 고대 마야의 건축 양식을 회상케 하나, 현대 물론 신전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갖춘 신전이다.

교회에서는 다섯번째로 크고, 미국 밖에서는 가장 큰 것이 될 이 신전은 현재 70 퍼센트가 완성된 것으로 공식 보도되고 있다. 1982년 말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전 건물은 멕시코 내의 약 70개 스테이크에 거주하고 있는 약 25만 여명의 회원들과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수 많은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원들은 신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멕시코 북 지역 집행 관리자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가 말씀했다.

"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추진시키 나가고자 열망합니다."

회원들이 해야 할 일중에는 자원 봉사, 기금 모금을 위한 개인적인 희생, 신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준비, 4대 프로그램 작성,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신전을 방문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브래드포드 장로는 역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멕시코 중앙 남 아메리카의 집행 관리자인 리차드 지 스콧트 장로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멕시코시티 신전 위원회의 일원이다. 위원회는 현재 자주 모임을 가지며, 금년 여름에 세워질 방문자 센터의 개관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일년 여" 남은 신전 헌납을 위한 기존 작업을 놓고 있다.

"회원들이 4대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맡고 있는 직분으로 시간을 나누어 쓰고 있는 브래드포드 장로가 설명했다. "그들은 성명 기록철에서 임의로 제출된 명단보다는, 우선 가족을 위한 신전 사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솔트레이크 신전은 부속 및 지하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연건평 253,015평방 피트로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로스엔젤레스 신전은 기초 면적이 364×241피트로 경내 면적상 가장 크다. 워싱턴 디시 신전은 높이가 288피트로 솔트레이크 신전보다 약 80피트가 더 크다.

현재는 대체로 신전을 작은 규모로 짓는 추세이지만, 교회에서 최근들어 계획된 줄단 리버와 멕시코 시티 신전은 그 규모가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달한다. 줄단 리버 신전은 148,236평방 미터이고, 멕시코 시티 신전은 126,000평방 피트가 될 것이다. *

서울 스테이크 구도자를 위한 특별 노변의 모임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2월 7일 제4와드에서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구도자를 위한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특별 연사로 북 스테이크 축복사로 수고하고 있는 김 산 형제가 초대되었으며 많은 선교사와 구도자 그리고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 산 형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이날 모임은 8시까지 계속되었으며 말일에 회복된 참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더욱 굳게 하는 영적인 모임이었다. *

반포 지부 이 민재 자매 신광 여고에서 수석 차지



서울 스테이크 반포 지부 소속의 이 민재 자매는 지난 1981년 12월 30일 대학 입학 학력 고사 발표에서 306점을 얻어 신광 여고에서는 수석을 차지하였고 전국 이과 여학생 중에서는 14위를 차지하였다.

이 자매는 작년 8월 22일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된 이래 열심히 교회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청녀 회장과 성도의 벗 구독 담당자로 봉사하고 있다. *

광주 스테이크 센터 기공식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스테이크 역원들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1981년 12월 21일 제1와드와 제2와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서 스테이크 센터 및 제1와드 건물 기공식을 가졌다.

제1와드의 최 정주 감독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기공식에는 광주 지역의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하여 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광주 지역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첫 삽을 들었다.

이 범태 스테이크 축복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광주 스테이크를 축복하였고 앞으로 세워질 스테이크 센터와 제1와드를 축복해 주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오랫동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크게 기뻐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사업을 마음 속으로 설계하며 다과를 들었다. *

서울 동 스테이크 청남 및 청녀 시상 프로그램

서울 동 스테이크는 1월 23일 오후 4시부터 제1와드에서 청남 및 청녀 시상 프로그램을 가졌다.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한 이날 모임에서 태능 와드의 목 진순 자매 외 4명이 청녀 표창장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에는 역시 태능 와드의 김 태석 형제가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 상에는 청량 와드의 김 입순 자매 외 13명이 수상하였다. 상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와 시상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부상으로 받은 일기책은 매일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미현 자매 단국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수석 합격



서울 동 스테이크 면목 와드 소속인 김 미현 자매는 1982년도 단국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수석 합격하였다. 김 자매는 송곡 여자 고등 학교를 금년에 졸업하였으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회원이다. *

손 승은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의 제 2 보좌로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981년 12월 6일 제1와드에서 이 호남 지역 대표가 감리하는 가운데 신권 역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수고하였던 손 승은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의 제2보좌로 지지를 받았다. 그간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수고한 박 재암 부장은 서울 스테이크 구역으로 이사하였으며 서울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수고하게 되었다. 손 승은 부장은 제1와드 감독으로 봉사한 바 있으며 오랫동안 고등 평의원으로 수고하여 왔다. *

'82년도 신학 연구원 중등부 졸업식

1월 2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는 1982년도 서울 지역 신학 연구원 중등부 졸업식이 있었다. 이 호남 교회 교육 기구 대표를 비롯하여 한인상 지역 대표, 서울 지역의 각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그리고 지부장단의 신권 지도자들이 졸업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모임에서 지난 4년 동안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을 이수한 92명의 학생들이 중등부 졸업 증서를 받았다. 참석 인원 약 190여 명. *